

# 호날두 ‘A매치 최다골’ 1골 남았다



2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슈카시 아레나에서 열린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조별리그 F조 3차전 포르투갈 대 프랑스의 경기에서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득점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프랑스전 두 골 넣으며 통산 109골...포르투갈 2-2 무승부 ‘16강 턱걸이’

### 유로 2020 16강 진출팀 확정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통산 최다 골 타이 기록을 세운 포르투갈이 프랑스와 비기고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16강에 턱걸이했다.

포르투갈은 2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슈카시 아레나에서 열린 유로 2020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프랑스와 2-2로 비겼다.

직전 대회인 유로 2016 결승전의 ‘리턴 매치’로 관심을 모은 이번 대회에서 포르투갈에서는 호날두가 페널티킥으로만 두 골을 넣었고, 프랑스에서는 카림 벤제마가 역시 혼자 두 골을 터트렸다.

유로 통산 최다 득점자인 호날두는 이번 대회에

서 3경기 연속골이자 5호 골을 기록하고 자신의 대회 통산 득점을 14골로 늘렸다.

더불어 109번째 A매치 득점을 올려 이 부문 역대 최다 골 기록을 보유한 이란의 ‘축구 레전드’ 알리 다에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던 프랑스는 이날 무승부로 1승 2무(승점 5)가 돼 F조 1위를 차지했다.

포르투갈은 같은 시간 헝가리에 극적인 2-2 무승부를 거둔 독일과 나란히 1승 1무 1패(승점 4)가 됐으나 이번 대회 상대 전적(2-4 패)에서 밀려 조 3위에 자리하고 16강에 가까스로 진출했다.

독일은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헝가리와 2-2로 비기며 천신만고 끝에 대회 16강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전반 11분 헝가리 아담 셀라이에게 헤딩 선제골을 내준 독일은 후반 21분 키어 하베르츠의 헤딩골로 균형을 되찾았다. 헝가리는 2분 뒤 언드라시 셰페르의 헤딩 골로 다시 달아났지만 독일이 후반 39분 레온 고레츠카의 골로 무승부로 경기를 끝냈다.

헝가리는 2무 1패(승점 2)로 대회를 마감했다.

E조 최종전에서는 스웨덴이 후반 추가 시간 터진 빅토르 클라에슨의 결승골로 폴란드를 3-2로 꺾고 2승 1무(승점 7),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에밀 포르스베리가 선제골을 터트린 스웨덴은 후반 14분 포르스베리의 추가 골로 한 발짝 더 달아났다.

폴란드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후반 16분 이어 39분 연속골을 몰아쳤지만 후반 추가시간 무

릎을 꿇었다. 1무 2패(승점 1)에 그친 폴란드는 조 최하위로 일찌감치 짐을 썼다.

스페인인 슬로바키아에 5-0 대승을 거두고 1승 2무, E조 2위로 16강에 합류했다. 스페인에서는 아이메릭 라포르테, 파블로 사리비아, 페란 토레스가 골 맛을 봤다. 슬로바키아는 0-0으로 맞선 전반 30분 골키퍼 마르틴 두브라브카의 어이없는 자책골을 포함해 두 차례나 자책골을 내주고 무너졌다. 슬로바키아는 1승 2패(승점 3), 조 3위로 탈락했다.

조별리그가 마무리되면서 27일부터 열린 16강전 대진도 완성됐다.

벨기에-포르투갈, 잉글랜드-독일 등 ‘빅 매치’가 성사됐다.

또한 웨일스-덴마크, 이탈리아-오스트리아, 네덜란드-체코, 크로아티아-스페인, 프랑스-스위스, 스웨덴-우크라이나가 8강 진출을 놓고 맞붙는다. /연합뉴스



독일 뮌헨 시청에 성 소수자에 대한 연대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이 내걸린 모습. /연합뉴스

## ‘무지개 조명’ 금지에 마스크로 물들인 팬들

### 유로 2020 독일-헝가리 전

축구 경기장에 무지개 조명이 금지되자 팬들이 직접 관중석을 무지개빛으로 물들였다.

B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4일 독일과 헝가리의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가 열린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는 무지개색 깃발을 들거나 무지개가 새겨진 마스크를 쓴 팬들이 대거 입장했다.

뮌헨시가 성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와 연대하는 취지에서 이날 알리안츠 아레나 외벽 조명을 무지개빛으로 하려는 것을 유럽축구연맹(UEFA)이 불허하자 팬들이 나선 것이다.

뮌헨의 LGBT 단체가 손 깃발과 배너 등을 만들어 경기장으로 향하는 축구 팬들에게 나눠줬다.

한 독일 팬은 헝가리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그라운드로 난입해 들어와 헝가리 선수들 앞에서 무지개 깃을 들었다.

헝가리에서는 지난 15일 학교 성교육이나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의 영화와 광고 등에서 동성애 묘사를 금지한 법률이 집권당의 주도로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자 뮌헨시는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알리안츠 아레나 축구장의 외벽 조명을 무지개빛으로 하겠다고 UEFA에 허가를 요청했다.

외벽 자체에 조명이 설치돼 스스로 다양한 색의 빛을 낼 수 있는 알리안츠 아레나는 프로 축구 바이에른 뮌헨의 상징이면서 뮌헨의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한편, UEFA는 유로 경기에서 무지개 완장을 찬 독일 주장 마누엘 노이어(뮌헨)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노이어는 성 소수자 인권의 달인 6월을 맞아 이번 대회 들어 줄곧 무지개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섰다.

이날 독일은 후반 39분 터진 티모 베르너(첼시)의 골로 헝가리와 2-2 무승부를 거두며 극적으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 부침의 KIA 이정훈 ‘뚝심’으로 간다

## 최형우 공백 때 ‘4번 타자’ 활약...페이스 떨어지고 견제 심해져 위기 “성적 안 좋다고 폼 바꾸면 오래 못가...내 스윙하며 꾸준한 선수 될 것”

KIA 타이거즈 이정훈이 성장의 갈림길에 섰다. 이정훈은 지난 5월 KIA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였다.

4번 타자 최형우가 망막이상으로 빠지면서 같은 좌타자 이정훈이 기회를 얻었다. 5월 5일 복귀 첫날 3안타를 날리며 안타행진을 시작한 이정훈은 5월 18경기에 나와 24개의 안타를 수확했다.

이정훈은 5월 한 달 0.364의 타율을 찍으면서 리그 전체 6위의 성적을 만들었다.

또 사사구 13개도 얻어내면서 0.468의 출루율로

전체 9위, 2개의 홈런과 함께 장타율 10위(0.515)에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6월 상황이 다르다.

이정훈은 24일 경기까지 6월 14경기에서 6개의 안타만 더했다. 7개의 볼넷을 얻어내기도 했지만 17차례나 삼진으로 물러났다.

5월과 다른 페이스지만 이정훈은 KIA 타선에 필요한 선수다.

5월 31일 망막 부상에서 복귀했던 최형우가 지난 16일 왼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다시 재할군이 되면

서 타선에 공백이 생겼다. 팀홈런 21개에 그치는 등 KIA의 장타력 고민도 여전하다.

선수 육성에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꾸준하게 이정훈을 지켜보면서 반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KIA다.

타격 페이스가 떨어졌고, 상대의 견제 심해지면 서 위기에 봉착한 이정훈. 하지만 평정심으로 ‘이정훈답게’ 위기를 넘고 한 단계 성장하겠다는 각오다.

이정훈은 “방망이가 많이 떨어져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타격이라는 게 그래프가 있다. 최대한 연습 많이 하고 선수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며 “상대 분석하고 들어오는 것도 많이 느낀다. 변화구를 한 5개 정도 던진다(웃음). 개되지 않는다. 공보고 공치는 것이

다. 페이스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니까 다시 올라오면 괜찮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험이 적은 타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성적이 좋지 않을 때 폼을 바꾸는 것이다. 체력적인 부분, 페이스 문제라는 부분을 간과하고 폼을 바꾸는 데만 주력하다가 결국 자신의 장점을 잃고 해매는 경우가 많다.

이정훈은 “스윙 안 바꾸고 갈 생각이다. 폼 바꾸면 짧은 시간에는 잘 맞을 수 있다. 이게 오래가지는 못한다. 내 것 유지하면서 찾으면 그게 꾸준하게 되는 것 같다”며 “치는 것에 대해서는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원준이도 비슷하다. 키움(이)정후한테도 물어봤는데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스타일을 바꾸면 안 되겠다고 확신했다. 잘 치는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맥락은 비슷했다”며 “지금 폼 유지하면서 이겨내겠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꾸준한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첫 선발 출전 광주FC 허을 “내 평점은 4점”

## 페널티킥 얻어내며 인천과 1-1 193cm 키에도 발놀림 좋고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아 ‘포스트 펠리페’ 꿈 영글어

광주FC ‘금호고 라인’의 스피드와 기술에 힘과 높이가 더해졌다. 허을이 포스트 펠리페를 꿈꾼다. 광주는 K리그1에 잔류한 을 시즌 최하위 싸움을 하고 있지만 끈질긴 승부와 투지로 팬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좋은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광주를 ‘까다로운 상대’로 만들었다. 금호고를 중심으로 한 광주의 ‘젊은피’도 광주의 현제이자 미래다.

팀은 물론 한국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발돋움한 엄원상을 필두로 올 시즌에는 엄지성과 이희균이 금호고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허을이 금호고 라인에 가세했다.

지난해 광주 유니폼을 입은 허을은 5월 30일 포

항 원정에서 후반 막판에 교체 투입, 프로데뷔전을 치렀다.

이어 지난 19일 서울과의 14라운드 잔여경기에서는 첫 선발 출장에 나섰다. 193cm의 큰 키를 활용해 제공권 싸움을 벌이고,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자 김호영 감독은 처음 구상과 달리 허을에게 풀타임 역할을 맡겼다.

김호영 감독은 “허을은 국내 선수 중에는 보기 드문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 큰 키에 비해 발밑 움직임이 좋고 활동량도 많다”고 말했다.

허을 역시 처음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허을은 “풀타임 경기를 뛰면서 성인 중앙수비수들과 경합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감 있게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경기 내내 서울을 압박한 허을은 막판 페널티킥도 얻어냈다. 그리고 김중우가 우여곡절 페널티킥에 성공하며 광주는 1-1 무승로 승점 1점을 보냈다.

허을은 “첫 선발 출장 경기를 접수로 평가한다면 4점이다. 전반에 패스 미스도 있었고, 스트라이크

는 골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며 “그래도 마지막에 페널티킥 얻어내서 4점을 줬다”고 웃었다.

시련의 시간을 딛고 얻은 순간이라 더 의미가 있었다. 지난해 프로의 높은 벽을 경험한 허을은 올 시즌 초에는 왼쪽 새끼발가락 피로 골절로 마음 고생을 했다. 1년 후배 엄지성이 ‘샷별’로 주목받고, 선배 이희균도 긴 침묵을 깨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을 보면서 부러움을 졌다.

허을은 “상무를 지원했었는데 감독님께서 너무 뛰어보고 싶지 않냐고 하셨다. 감독님 말씀대로 남아서 기회를 얻었다”고 이야기했다.

광주에도 허을이 필요하다. 광주를 대표했던 공격수 펠리페가 이적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같은 키의 장신 공격수 허을의 가치가 더 커졌다.

허을도 금호고 시절부터 펠리페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제2의 펠리페’를 꿈꿔왔었다.

허을은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팀이 승리하려면 득점이 필요하다. 득점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